

# 텃밭 헌혈의 집...광주·전남 혈액보유량 '빨간불'

코로나19 이후 헌혈자 발길 끊겨  
지난달 14일 0형 1.9일본 '경계'  
고교생 참여율 전체 2% 불과  
개편 대입제도 봉사 비적용 큰 몫

“첫 헌혈이 중요하데, 고등학생 참여율이 저조하니 큰일이죠.”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전남대 헌혈의 집.

이날 헌혈의 집에서 30여분 동안 방문자를 확인해 본 결과 고등학생은 찾기 힘들었다. 헌혈자들은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으며, 가끔씩 40~50대의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헌혈용 베드는 11개에도 3 곳만 채워져 있는 등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전남대 헌혈의 집을 방문한 헌혈자 1,565명 중 고등학생은 32명(2%)에 그치는 등 고교생 헌혈자도 크게 줄었다. 간호사 A씨는 “3년 전에는 항상 헌혈용 베드가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며 “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주로 대학생들이 헌혈을 하러 오지만, 코

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 등과 시험기간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년간(2019년~2022년) 광주·전남 지역 전체 헌혈자 수는 ▲2019년 20만6,605명 ▲2020년 18만3,153명 ▲2021년 18만5,298명 ▲2022년 18만9,525명으로 4년새 8.2%가 줄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헌혈의 집도 헌혈도 감소했다. 전남대 헌혈의 집은 2019년 2만 6,425명에서 2022년 2만 2,591로 감소했으며, 충장로 헌혈의 집은 2019년 3만 1,682명에서 지난해 2만 7,530으로 줄었다.

고등학생 헌혈자 수도 절반 이상 급감했다. 고등학생 헌혈자 수는 ▲2019년 5만6,384건 ▲2020년 3만4,255건 ▲2021년 4만871건 ▲지난해 2만7,416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약 51% 감소했다. 이에 따른 혈액보유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 적절한 상태인데, 올해 기준 지역 내 혈액보유량은 3~4일분인 관심 상태로 떨어졌다. 0형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준 1.9일분인 경계 상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광주전남혈액원은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봉사활동 비중 감소와 고등학생 수 감소를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진희 전남대 헌혈의 집 센터장은 “헌혈자들의 20%는 다시 반복해서 헌혈을 한다. 때문에 고등학생 때 첫 헌혈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봉사시간 미적용 등의 이유로 참여도가 낮아졌다”며 “고등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참여 및 헌혈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비엔날레 전시관 찾은 시민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에드가 칼렐의 '고대 지식 형태의 메아리'를 감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무등산 평두메습지' 광주 첫 랍사르습지 추진

북구, 환경부에 협조 요청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광주지역 최초로 '랍사르습지' 등록에 나선다. 7일 북구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내 화암동 530번지 일원 평두메습지가 '랍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환경부에 협조 요청했다.

습지보호를 위한 랍사르 국제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유지 등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습지를 랍사르습지로 지정·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곳이 등록돼 있다. 무등산 자락의 평두메습지는 해발고도 240m에 형성된 2만 2,600㎡ 면적의 산지형습지다. 낙지다리, 개대항 등 희귀식물과 소쩍새, 솔부엉이와 같은 천연기념물까지 총 786종의 생물

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삶, 담비, 수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으며 큰 산개구리, 참개구리, 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주요 서식지다. 북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습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국제적 위상과 생태적 가치 제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도움이 되도록 평두메습지를 랍사르습지로 인정받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 '5·18 왜곡 발언' 전광훈 수사 본격화

경찰이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5·18을 왜곡·편향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무혐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선거비용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비용 제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4일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환준 기자

<h3>토지매매 → 8,000만</h3> <p>(토지분양 중) 장성담5분, 광주 20분, (6m도로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컨하우스</li> <li>② 소형 주택</li> <li>③ 전기,수도,배수 완비</li> <li>④ 주말 하우스 최고</li> <li>⑤ 잔디·나무·일체 포함</li> </ul> <p>★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010-6670-9800</p>	<h3>상가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매매,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p> <p>시세 → 14억</p> <p>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p> <p>010-2614-9801</p>	<h3>※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삼각동 (다가구원룸) ▶ 감정가 7억7천억 → 최저가 5억4천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광주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31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2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p>
--	--	--